



방산 4대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.

- 김 총리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 최첨단 항공기(KF-21 등) 생산라인 시찰
- K-방산 경쟁력 강화와 방산업체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
- K-국정설명회 통해 K-방산 도약 성과와 국정 철학 공유

【관련 국정과제】 113. K-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1.7.(수) 오후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, 경남 사천시 소재)을 방문하여, 항공 관련 방산업체 대표, 국회의원 및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.
 - * (참석) 한국항공우주산업·한화에어로스페이스·대한항공·LIG넥스원·퍼스텍·데크카본 대표, 국회의원(3명), 방위사업청장, 우주항공청장, 총리비서실장, 국정운영 실장, 국방부·산업부·중기부 국장급,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등
- 이번 간담회는 주요 국정과제인 ‘K-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달성’을 위해, K-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·중·소 방산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방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- 김 총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라인을 시찰하였다. 이어 생산이 완료된 KF-21 보라매 전투기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보며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K-방산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.
- 이어 김 총리는 항공방산업체 대표,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방산업체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.
- 김 총리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, “현장에 와보니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현주소, 의지,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”고 하였다.

- 지난 12월 의원회관에서 K-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에 참석한 이후 방산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데,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.
- 우리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큰 그림인 ‘ABCDE*’ 중 D인 방위산업 도약을 위해 방산 외교, 부품 국산화, 연구개발 투자, 수출지원, 공정 생태계 조성 등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,

* ABCDE(AI, Bio, Contents & Culture, Defense, Energy)

- 방산 국제 경쟁력 강화와 방산업체의 지속·발전 가능한 생태계 조성은 방산 4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요소로서,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.

- 이후 김 총리는 KAI 본관 대강당에서 방산업체 관계자, KAI 임직원, 우주항공청 직원을 대상으로 「K-국정설명회」를 개최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K-방산 도약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, 그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던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
- ‘ABCDE’ 중 하나인 방위산업을 국가안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격을 보여주는 전략산업이자 미래성장의 축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성과를 설명하였다.

※ 「K-국정설명회」 일정 : ▲12.2일 서울청사 인턴/수습사무관 ▲12.4일 광주 서구청 초청 → ▲12.7일 민주당 청년정책 광장(인천) → ▲12.15일 민주평통(서울) → ▲12.20일 전남도청 초청 → ▲'26.1.7일 KAI 간담회 계기(경남 사천) → 1월 중 강원 춘천, 경기 수원, 전북 전주, 경북 포항, 인천 계양, 경기 광명 등 개최 추진 중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철 (044-200-2123)
		담당자	중령	신민철 (044-200-2126)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두 (044-200-2048)
		담당자	사무관	이경민 (044-200-2054)

